

[1~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“바다 좋다.”
유진이가 말했다.

“응.”
“재이야, 나 배고파.”
“방금 많이 먹었잖아.”
“그래도 배고파.”

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파도가 발끝에 와 닿았다가 물러갔다. 유진이가 발목을 적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서 있었다. 그러다가 ㉠손전등을 아래로 비쳤다. 모래 위에 게 한 마리가 있었다. 유진이가 손전등을 게에게 고정했다. 게가 옆으로 기어가려다 빛에 멈췄다. 유진이가 몸을 구부렸다.

“유진아.”
유진이가 게를 집어 들었다. 게가 발을 허우적거렸다. 유진이가 ㉡그것을 눈 앞에 들고 봤다. 그리고 입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다.

“야.”
내가 유진이 팔을 잡았다. 유진이가 나를 봤다. 어두워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, 손전등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유진이 얼굴을 비쳤다. 눈이 이상했다. 초점이 조금 ㉢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.

“배고파.”
“게 날것으로 먹으면 탈나.”
“배고파.”
“유진아.”
유진이가 천천히 게를 내려다봤다. 그러다가 손에서 놓았다. 게가 모래 위에 떨어져 도망쳤다. 유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.

“재이야, ㉣사람 냄새가 나.”
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.
“……뭐?”

“바다에. 사람 냄새가 나.”
유진이가 코를 킁킁했다. 바람이 불었다.
“맛있을 것 같아.”

나는 유진이 팔을 잡고 바닷가에서 올라왔다. 유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. 그냥 내가 잡아당기는 대로 따라왔다. 올라오면서 유진이가 계속 중얼거렸다.

“배고파. 배고파.”
속소로 돌아오면서 나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.
(중략)

‘사람 냄새가 나. 맛있을 것 같아.’
그게 그냥 말실수인지, 아니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. 색욕이 쇠뿔했을 때도 처음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인 줄 알았다. 그러다가.

핸드폰이 울렸다. 새벽 두 시였다.
유진.
나는 이어폰을 낀고 받았다. 자는 애들이 깨지 않게.
“재이야.”
유진이의 목소리가 낮았다.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.

“응. 왜?”
“배고파.”
“……밤에는 참아야지.”
“못 참겠어.”
“유진아——”
“재이야, 있잖아.”
유진이가 말했다.
“웃긴 게 뭔지 알아?”
나는 대답하지 않았다.
“사람 냄새가 나. 여기서도”
“…….”
“맛있을 것 같아.”
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차가워졌다.

“유진아.”
“응.”
“자.”
“배고픈데 어떻게 자.”
“유진아, 그냥 자.”
“……재이야.”
“응.”
“나 지금 이상한 것 같아.”
그 말이 예상보다 또렷하게 들렸다. 나는 숨을 잠시 참았다.
“이상해?”
“응. 배가 너무 고파. 근데 음식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가 나는데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상하지?”

“…….”
“재이야?”
“어. 이상한 거 맞아. 그냥 자. 자면 배고픔 몰라.”
“……그래?”
“응.”
“재이야, 나 재이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낫다.”
나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들고 있었다. 유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. 천천히, 길게 숨을 쉬는 소리.

“재이야.”
“응.”
“자지 마.”
“…….”
“나 혼자 이리기 싫어.”
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. 유진이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. 규칙적으로.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고 천장을 봤다.

새벽 두 시 반이 됐다. 유진이가 먼저 말했다.
“재이야, 자도 돼.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.”
“……진짜?”
“응. 자.”
“어.”
전화를 끊었다.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당겼다. 자야 했다. 눈을 감았다. 유진이 목소리가 자꾸 들렸다. ‘사람 냄새가 나. 맛있을 것 같아.’ ㉤색욕 때도 그랬다. 처음엔 귀엽

고 달콤하다가,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. 탐식도 그렇게 되는 건지.

- 이정훈, 「마지막 소원」 -

1. ㉠~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: '재이'가 '게'를 발견하고 비추기 위해 사용한 도구다.
- ② ㉡: '유진'이 죽이고 싶어하는 생명체이다.
- ③ ㉢: '유진'의 손에 들고 있는 게를 가르킨다.
- ④ ㉣: '유진'이 궁극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것의 냄새다.
- ⑤ ㉤: '유진'이 딸고도 죄악을 겪은 인물이 있음을 암시한다.

2. '게'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인물의 욕구를 해소하는 역할로, 이후로 사건의 진행이 극적으로 바뀐다.
- ②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게 만든 원인으로,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게 만든다.
- ③ 두 인물의 갈등이 되는 원인으로, 사건의 긴장감을 올리고 있다.
- ④ 인물의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로, 이후에도 인물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음을 암시한다.
- ⑤ 두 인물의 목표로,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3. '재이'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'재이'는 '탐식'이라는 죄악외의 다른 죄악을 경험한 적이 있다.
- ② '재이'는 '유진'을 '탐식'이라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
- ③ '재이'는 '유진'의 욕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
- ④ '재이'는 '유진'을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다.
- ⑤ '재이'는 '유진'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.

4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「마지막 소원」은 주인공이 신이라 불리는 존재와 거래하여 짝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다. 그 대가로 상대에게 7대 죄악중 하나의 죄악을 씌워 그 욕구를 증폭시키게 된다.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어 주인공은 7개의 죄악 모두를 시도해보지만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정신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.

- ① '탐식'이라는 죄악은 '재이'가 의도적으로 '유진'에게 씌운 것이군.
- ② '유진'은 결국 '탐식'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, '사람'을 먹게 되겠군.
- ③ '유진'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'재이'의 정신이 점점 무너지게 되겠군.
- ④ '탐식'이라는 죄악이 씌워지자마자 '유진'은 동물이나 '사람'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겠군.
- ⑤ '재이'는 결국 '유진'과 끝내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겠군.